

제27회 법무사 헌법시험에 대한 총평 (문태환 교수님)

먼저 법무사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들께,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.

제27회 법무사시험 헌법과목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, 어렵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① 지문의 길이가 길게 구성된 문제는 3개 출제되었으나 본 강사의 강의를 단 한번이라도 들 어본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골라내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점, ② 조문 문제는 5개정도 출제되었 으나 이미 예상문제라고 강조하였던 것들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③ 법무사단기 헌법일 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것입니다.

쟁점 및 지문의 구성상 특징을 살펴보면, **헌법총론**(헌법의 기본원리)에서 1문제, **기본권**(기본 권제한의 한계, 평등권, 개인정보자기결정권, 양심의 자유 2개, 표현의 자유, 재산권, 직업의 자유, 선거운동의 자유, 근로의 권리)에서 10문제, **통치구조**(정당제도 2개, 지방자치제도, 대통령, 선거관리위원회, 법원, 헌법재판소 2개 등)에서 등 총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그리고 총 100개의 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은 69개, 법령지문은 31개로 구성되었고, 헌정사나 이론 지 문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.

올해 법무사 헌법시험의 출제경향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.

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았다는 점과 하나의 테마에서 복수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.

헌법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법무사 수험생들로서는 헌법 수업시간만이라도 잘 따라온다면, 반드시 실제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